

“새 식구가 와도 아프지, 성격이 좋은지 알 수 없어요”



슬픈 동물원

<4> 야생동물검역센터도 없는 동물원

국내 동물원엔 새 식구로 맞는 동물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건강 상태, 생태적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야생동물검역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. 국외 또는 국내 동물원간 교환·매입 방식을 통해 동물이 들어오면 이 동물이 어떤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우리에 방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.

국내·외에서 새 동물 구입 등에 따른 콜레라(cholera)·조류인플루엔자(AI)·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(SARS) 등 감염감염병 예방과 새로운 환경에서 동물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국내 단 한 곳이라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.

21일 국내 동물원에 따르면 서울동물원·테마동물원·주주·대전 오월드(동물원)·대구 달성공원·전주동물원·우치동물원 등 국내 주요 동물원엔 야생동물검역센터가 없다.

야생동물검역센터는 동물의 질병 유무와 건강 상태·생태적 특성 등을 살펴 검사하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·연구한 뒤 동물을 우리에 방사하는 역할을 한다.

슬픈 동물원으로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. 국내 동물원들은 다른 동물원과 동물을 교환 또는 구입을 자주하는데, 이 때마다 해당 동물에 대한 진단서 등을 받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만 주고 받는다는 게 사육사들의 설명이다.

이 진단서 등을 토대로 해당 동물을 살핀 뒤 우리에 곧바로 방사를 한다는 얘기가. 이는 해당 동물의 질병 감염 여부와 생태적 특성, 건강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 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시설 또는 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.

또 진료 장비 등 의료 시설도 매우 열악하다. 광주우치동물원은 고열 소독기·현미경·전자레인지·마취총·냉장고·저울 등 기본적인 장비만 갖추고 있다. 이동식 X-레이·초음파 기계조차 없다.

숙을 들여다봐야 하는 각종 질병검사는 협약을 맺은 지역 대학의 수의학과를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. 이는 비단 우치동물원

동물원간 매입 통해 들어와도 특성 파악 못해 지방동물원 대부분 진료장비 등 의료시설 열악 질병 연구·희귀동물 보호위해 센터 설치 시급

만의 일은 아니다. 서울동물원 등 대규모 동물원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방 동물원이 처한 현실이다. 서울 등 수도권 동물원에 비해 지방 동물원이 상대적으로 진료 장비 등 의료 시설이 열악한데, 지방 동물원의 동물을 위해서라도 야생동물검역센터 설치 시급하다는 지적이다.

지방 동물원의 열악한 진료 장비시설을 감안하면 각 동물원이 동물을 들여오기 전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의무적으로 거친 뒤 질병 감염 여부 등 건강 상태와 생태적 특성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면 동물들이 현재보다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.

반면 대만 타이페이(Taipei Zoo) 시립동물원엔 국내 동물원 사육사들이 부러워하는 야생동물검역센터(공식 명칭·야생동물검역구상센터)가 있다.

지난 1984년 만들어진 이 센터는 아픈 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 또는 의학적 연구, 수입 동물에 대한 감염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. 특히 현재까지 미발견된 질병에 대한 연구는 물론 천연기념물 등 희귀동물 보호역할도 하고 있다.

아픈 동물이 동시에 센터를 찾는다면 내부적으로 정한 순서인 희귀동물부터 치료하는 등 그 간의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동물을 보호·관리·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.

기간 검역구상센터를 통해 동물의 특성과 질병 연구 및 치료방법 등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데, 이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동물검역구상센터라는 게 타이페이 시립동물원 측의 설명이다.

타이페이 시립동물원 제니씨는 “대만엔 정부에서 운영 중인 검역구상센터가 수 곳이 있다. 다만, 시립동물원의 검역구상센터는 공기순환·소독·검역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른 검역센터와 차이가 있다”며 “동물 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조건을 주기 위해선 검역구상센터는 동물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”이라고 말했다.

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/양세열기자 hot@kwangju.co.kr

대만 타이페이 시립동물원 진스첸 원장

대만 타이페이 시립동물원 진스첸 원장은 지난 6월 6일 동물원에서 동물 검역구상센터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시설이라고 밝혔다.



그는 동물원 기능이 동물 보육·종 보존·교육인데, 이를 위해서 동물의 질병관리·생태관리·기타 연구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.

이 뒷받침 역할의 한 가운데에 동물검역구상센터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.

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.

-동물검역구상센터 역할은.

▲동물원에 수 많은 동물들이 있다. 검역센터가 없으면 질병 감염 등 동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. 아픈 동물이 있으면 바로 격리된 뒤 나을 때까지 보호 조치한다. 이 과정에서 의학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 연구단체와 대학 등과 연계해 연구한다.

-검역센터 운영은 언제부터인가.

▲지난 1997년 설립된 뒤 2006년 새로 이전했는데, 콜레라·조류 인플루엔자 등 각종 질병 때문에 만들어졌다. 이 모든 질병이 동물에서부터 발생했으며 인간에게 전염된다. 정부 차원에서 검역센터를 지원해줬다.

질병감염 여부서 생태관리까지 동물검역구상센터는 꼭 필요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

-동물원 가장 구석진 곳에 검역센터가 있는 이유는.

▲공기 순환 장치(들여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음)·배수시설 등 공기순환시설과 소독시설, 검역 시설을 갖추고 있다. 동물원 시설 중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는데, 아무리 최첨단 시설을 갖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.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.

-검역센터에 오는 동물은.

▲해외에서 수입된 모든 동물은 이곳을 거치게 된다. 이들 동물은 검역센터에서 평균 30일 간 지낸다. 치료 센터도 갖추고 있는데, 대신 야생동물이나 다른 동물원 동물 등 외부 동물들만 치료한다. 시립동물원 치료소는 동물원 안에 별도로 있다.

-교육장으로도 유명한데, 비결은.

▲이 또한 검역구상센터를 빼놓고 말하긴 곤란하다. 합법 또는 불법으로 들어온 동물에게 피부병 각종 질병·질환이 있을 수 있다. 검역센터에선 동물이 들어오면 모든 감염을 진행하는데, 동물의 종에 따라 짧게는 30일, 길게는 90일간 지켜본 뒤 질병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동물원으로 보낸다. 이 과정을 잘 아는 부모 입장에선 동물원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. 또 단순 방문 또는 자원봉사차 동물원을 찾은 학생들이 동물에 대해 흥미를 갖도록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

-향후 동물원 발전 방향은.

▲대개 동물원의 역할은 동물 보육, 희귀동물 관리, 교육 등 세 가지다. 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선 동물 관리·특성 이해·질병 등 연구 등이 필요한데,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

/대만=이종행기자golee@kwangju.co.kr



▲대만 타이페이 시립동물원 검역구상센터 내 보호·관리실. 이 센터 수의사들은 각 우리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통해 격리된 수입 동물들을 관찰한 뒤 생태적 특성 등을 감안, 우리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.

▼대만 타이페이 시립동물원 내 소속 수의사들이 지난 6월 6일 검역구상센터 수술실에서 교통사고 다친 원숭이를 치료하고 있다. 검역구상센터는 수입된 동물 검역 이외에도 대만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을 앓는 동물을 치료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.

/대만=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

보약 홍삼은

성인병 노화방지는

- 적절한 운동
- 마음에 평안
- 음식조절입니다

건강한 생활! 장수의 비결!

북고당 한약방

가족의 건강~ 환한 웃음~ 지켜 드립니다.

6년근 홍삼 60포 → 15만원 (주문판매)

홍삼 검사품 **생산지 직거래**로 저렴합니다

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-59 T.062-369-9227

두충오가피

활기찬 삶! 생활의 활력소!

60포 → 120,000원

농협 653-12-003100
에금주 박주환